

나경원 “마음 굳히는 중”...국힘 전대 두달 앞 ‘최대 변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수도권 기반·높은 인지도·여론조사 선두권 대통령실 ‘저출산 정책 비판’ 견제구...안철수·유승민 등 득실 계산 분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나경원 변수'로 술렁이고 있다. 원조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의원의 '친윤(친윤석열) 단일후보론'이 힘을 받는다는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판도를 뒤집을 최대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친윤 실세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의 소위 '김장 연대'에 이어 당내 최대 친윤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과의 이른바 '김감(김기현-국민공감) 연대'를 내세우는 등 연일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권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윤심' (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면서 '친윤 당권주자 교통정리'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그간 당 대표 출마에 "고민하고 있다"며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던 나 전 의원이 6일 오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라며 당권 도전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하면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역시 친윤계로 꼽히는 나 전 의원의 4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높은 대중 인지도까지 겸

비해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돼왔다.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11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전 대표와 맞붙어 '민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밀렸음에도 '당심' (당원투표)에서 우세한 결과를 만들어 낸 바 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 안철수의 의원에 대해 나 전 의원의 출마는 작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안 의원의 강점으로 꼽히는 높은 대중 인지도나 수도권 기반이 나 전 의원과 적지 않게 겹치기 때문에 애초의 득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취약한 안 의원으로서 '당 대표 수도권 출마론'으로 사실상 공동

전선을 구축 중인 윤상현 의원과 연대로 돌파구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해 "3월 되면 (김장이) 설 탄데요. 사실은 (영남권) 뒷발연대 아니겠느냐"라면서 "저는 '윤심 팔이' 후보가 아니라 윤(대통령)에 힘을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 당권 후보이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나 전 의원의 출마는 득표 전략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볼 부분이 될 수 있다.

'당원투표 100%' 틀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에 대해 매우 불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만약 나 전 의원의 출마로 친윤 표심이 분산된다면 유 전 의원으로서도 해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이 아직 출마를 최종 결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관측은 아직은 시나리오 수준이다. 나 전 의원으로서도 향후 정치적 미래를 고려할 때 '윤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 6일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내놓은 '대출생률' 저출산 대책에 대해 나 전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현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고 일축한 일을 두고 현 상황과 연결 짓는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브리핑 시점이 공고롭게도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시사 보도가 나온 직후란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견제구'가 아니냐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출석 앞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도 여야 격돌

오늘부터 30일간...野 “민생법안 처리·대정부 현안 질의 관철”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안정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과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

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활용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파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를 통한 긴급 분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

탄용'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등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 민생 법안 처리나 긴급 현안 질문도 여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정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판을 키우려는 민주당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긴급현안질문 계획 등을) 급조한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무혐의 입증 자신감

내일 검찰 출석 앞 총력 대비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력 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한편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들도 다시금 꼼꼼히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10일 출석 때 1~2명의 변호인과 함께 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상남FC 후원금'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인 만큼 이 대표는 이번에도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 출석 예정일이 10~12일로 점쳐진 가운데 가장 빠른 10일로 결정된 것도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인지라 기준에 정리해 둔 사실을 토대로 소명하고 을 계획"이라며 "본인이 법률가인 만큼 검찰의 무리한 취조에는 적극적인 반박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 이후 '반격 전략'도 준비 중이다. 소환 조사일을 신년 기자회견

전보다 앞당겨 잡은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성' 검찰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년 회견에서 각종 현안 메시지를 쏟아내며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회견 시점으로는 설 연휴 직전인 이달 셋째 주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설 밤상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에도 보나 마나 피의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전례 없는 야당 대표 소환조사에 설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하듯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각종 '검찰 견제' 제도와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말 '검사 실적 공개법'을 언급한 데 이어 임선숙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 회의에서 검사 회피제와 실명 공개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전반적 분위기는 신중론에 가깝다.

출사 출신인 한 중진 의원은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검사 관련 정보를 마구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싸울 때”

박지원, 광주시당 초청 특강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금은 일치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할 때"고 7일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약 지금 DJ라면?'을 주제로 열린 광주시당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금 디제이(김대중 전 대통령)가 있었다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라'고 했을 이야기가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냐"며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탤 예정이다.

그런데 "당내에서 '이재명이 쓰러지면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진다는 패배 의식을 갖고 있는 말'이라며 '일치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쓴소리로 이어갔다.

그는 "말쭙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가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찍어갔는데도 열흘간 거짓말 했다"며 "강하게 대처는 안 하고 이를 밝힌 우리 당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만 북과 대화하지 않았느냐고 물아불렸다"고 꼬집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 광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